

4/28(수) 다니엘 묵상 12

다니엘 2:44-4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왕의 꿈 속에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미하는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나라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담겨져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나라의 도래와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나라'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나라와 천국

공관복음에 보면 하나님나라가 '천국'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하나님나라 보다 천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은 신자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나라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천국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영생의 삶이 신자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나라(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라면 이미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그저 죽은 이후에 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믿는 자들이 장차 가게 될 곳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올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계 21:1-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장차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므로 하나님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내려오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는 오심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Already But Not Yet)

공관복음과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혼용되어 쓰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현재성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눅 9:2,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행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한 현재성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나라의 오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한 말대로("짐이 국 국가다"(레따 쎄 무아)) 왕정 시대에 왕은 곧 국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성취는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눅 4:17-19,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데 그 중 한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한 징조를 가리켜 ‘복음 전파, 죄사함, 기적,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으로 보았습니다(눅 11: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나라는 이 땅에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비유(혼인잔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열 처녀 비유 등등)를 통해 천국의 미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말할 때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미(Already) 그러나, 아직(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 아직 이 세상의 왕인 사탄과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게 될 ‘천국’ 즉, 하나님나라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원리를 따라 미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구석(가정과 직장, 사업장 등등)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악의 구조와 부조리에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세상의 힘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과 실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안마를 위한 기도:** 자유를 빼앗긴 미안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제사회의 협조로 인해 미안마에 자유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로 오늘은 Youth Group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